

일부단미 사료가격 변동 예상 되나
배합사료 가격 큰 변동 없을 듯

—국제사료곡물안정추세와 사료곡물조기구매계획—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3월 11일자 당국의 사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홍보 지침에 따라 그간 각계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로 사료 공급 방안이 상당히 개선 되어가고 있으나 이와같은 제도의 변경은 아직 실현 단계에 처해 있으며 또한 강류사료를 비롯한 일부 원료의 수급이 아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난해 부터 축산업의 호경기로 사료 수요가 급증한 결과 곡류사료 소비량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수요증가에 반하여 4월말 도착 예정인 옥수수 38,322%이 5월 11일경으로 도착 지연이 예상되어 일부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일시적인 옥수수 부족 현상으로 배합사료 생산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대책으로서는 양륙 보유 옥수수 배정분 2,500%으로 보충 할 계획이나 도입 옥수수와와 가격차가 톤당 4만원 이상이 되므로 가격차 보전 대책이 뒤따라야 할 실정에 있다. 대체적으로 단백질사료 사정은 3월을 고비로 4월부터 완화하기 시작 하였으나 강류사료 사정은 4월을 고비로 5월부터는 소맥분 수요의 회복 그리고 목초등의 이용으로 차츰 완화 되리라 기대된다. 현재 국제 사료곡물 시세는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옥수수 주산지대(主産地帶)의 5월의 기상 조건만 계속 양호하게 진행되어 목표면적이 계획대로 파종 된다면 특별한 가격 변동 요인이 없는 한 국제곡물 시세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같

은 옥수수 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옥수수 22만톤 추가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바 현재 국제곡물 시세를 감안할 때 추가 옥수수 구매분의 옥수수 구매 단가는 C&F톤당 \$ 125 ~ \$ 128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 하리라 기대되며 아무리 값이 오른다하여도 \$ 130 수준이하의 구매가 가능하리라 기대됨으로 현행 배합사료가격은 기타요인이 없는한 그다지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곡류사료 이외에 현재 인공급체등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골분이나 인공급체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므로 특히 채란제의 경우 연란(軟卵) 생산등이 생길 우려가 없지않다. 이와같은 원인은 인(磷)의 국산화가 품질과 물량 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외화사정을 이유로 국산화라는 미명하에 성급히 수입을 제한조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외환사정이나 국산화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국가나 양육가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배합사료 생산추세

1976년도 1~2월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전년 동기간과 대비하여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20%가 증가하였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양계용의 경우 육추용사료가 42%, 성계용사료가 29%, 육계용사료가 21% 합계 30%가 증가하

였고 이밖에 낙농사료가 9%, 그리고 농축사료가 73%씩 각각 증가한데 비하여 양돈용은 2%, 비육우용사료는 6%가 각각 감소하였다. 용도별 구성비를 보면 양계용이 전년도의 58.9%에서 63.8%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양돈용은 전년도의 17.3%에서 14.2%로, 낙농용은 18.0%에서 16.4%로 그리고 비육우용사료는 4.9%에서 3.8%로 각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사료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협회 회원공장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1월대비 2월에는 22.8%가 감소하였으나 3월에는 9.8%가 증가하였고 옥수수 사용실적은 1월대비 2월에는 9.2%가 감소한데 비하여 3월에는 13.2%가 증가하였다. 배합사료 총생산량에 대한 옥수수 사용 비율은 1월에는 47.5% 2월에는

49.2% 3월에는 49%로 1월에 비하여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4월에는 농축사료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 수요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농축사료 생산량을 보면 1월에는 834%으로 극히 저조하였던 것이 2월에는 1,439%으로 그리고 3월에는 3,707%으로 급격한 생산량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4월부터는 농축사료 생산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까지 양축농가는 오랜관습에 젖어 강류사료 과용현상을 되풀이하여 왔으나 사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제고되었고, 또한 저효율사료보다 고효율사료가 얼마나 경제적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으므로 사료의 합리적 이용 방안이 더욱 강구되어지리라 보아진다.

〈표 1〉 배합사료 생산실적 대비

년 월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농축사료	계
	육 추	성 계	육 계	소 계					
1975. 1	6,934	26,268	4,515	37,7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2	7,261	31,424	5,811	44,496	12,137	11,987	3,423	705	72,748
계	14,195	57,692	10,326	82,213	24,354	25,228	6,839	1,734	140,326
%	10.1	41.1	7.4	58.6	17.3	18.0	4.9	1.2	100
1976. 1	11,119	38,664	6,286	56,069	13,227	15,793	3,378	1,225	89,692
2	9,002	35,844	6,297	51,143	10,742	11,770	3,064	1,840	78,559
계	20,121	74,508	12,583	107,212	23,977	27,563	6,443	3,008	168,203
%	12.0	44.3	7.5	63.8	14.2	16.4	3.8	1.8	100
1976. 1-2	142	129	121	130	98	109	94	173	120

2. 사료원료가격 현황

가.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1976. 4/23현재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사료곡물및 소맥의 국제시세를 보면 〈표 2〉에 나타나있는 바와같이 옥수수의 경우 5월 선적분이 1월 13일 현재의 C&F 톤당 \$132에서 \$125로 하락된 시세로 거래되고 있으며 7월 선적분이 \$132에서 \$127로 그리고 9월 선적분도 \$127에 거래되고있어 추가구매계획 22만톤의 선적시기가 6~8월이라고 할 때 앞으로 \$127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대두박은 4/23현재 5~9월선적에 \$

190~\$193로 거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두를 수입해다가 착유하고 그 박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소개해 드린다. 당초 농수산부에서는 금년도에 대두 4만톤을 수입해다가 대두박 3.1만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어분의 생산량 감소와 단백질사료의 수요증가로 단백질사료가 크게 부족현상을 시현(示顯)하고 있기 때문에 대두 1만톤을 추가 책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두박 소비추세가 월간 6천톤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산어분이나 채종박등이 원활히 생산된다면 약간 대두박 수요가 감소되었으나 현재 추세로 어느정도 진행된다면

년간 적어도 5만톤 이상의 대두박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있다. 또한 배합사료 원료수급과 직접적인 관계가있는 소맥의 C&F 톤당 가격은 2월 12일에는 5~7월 선적에 톤당 \$166에 거래되던 것이 4/23현재 \$149~154에 거래되고있어 원가면에서 문제점이 없기때문에 소맥분의 수요만 회복된다면 소맥피 수급상 차질이 없겠으나 소맥분 수요의 증가는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만큼 수급이 원활하여지기는 못할 것이다.

〈표 2〉 사료곡물 및 소맥의 국제시세

단위 : \$/C&F톤

거래품명 일자	옥 수 수			대 두 박			소 맥		
	5	7	9	5	7	9	5	7	9
1/13	132	132	—	—	—	—	155	156	—
2/12	130	131	—	191	194	—	166	166	—
3/10	129	130	—	190	193	—	160	162	—
3/31	125	127	125	187	189	192	150	152	155
4/ 3	125	126	124	186	189	192	148	151	153
4/13	125	126	124	—	—	—	—	—	—
4/15	124	125	124	188	192	195	148	151	154
4/20	125	126	125	191	194	196	151	153	156
4/23	125	127	127	190	193	191	149	152	154

나. 주요 단미사료 시세

1976. 4. 15일 현재 서울, 경기 지방의 주요 단미사료시세를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년도 4/15에 비하여 도입옥수수 가격은 21.3%, 대두박 8.7%, 옥수수 배아박은 9.1%가 하락한 반면 국산옥수수가 3.7%, 임박, 호마박이 5.7%, 채종박이 16.8%, 옥수수구르벤이 6.3%, 탈지강 4.3% 어분상품 16.7%, 어분중품이 8.3% 그리고 골분이 64.3%나 크게 뛰었고 특히 소맥피 가격은 130%라는 엄청난 가격조정이 있었다. 따라서 76. 3. 15일자 시세와 비교하여보면 대체적으로 단백질사료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반면 강류 및 인공급제 파동으로 탈지강이 23% 골분이 17%나 크게 뛰고있다. 이와같이 강류가격이 크게 폭등하고있는 원인은 소맥의 제분이나 대맥등

가공이 부진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지나 인공급제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완전 국산화 대체가 실현될 수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산화를 강요한데 그원인이 있다고 보아지며 이와같은 인공급제 수급 불균형은 올봄의 채단체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있다.

3. 배합사료가격 현황

1976. 3. 15일현재 배합사료가격을 1975년도 전국 평균가격과 대비하여 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양계용 배합사료는 거의 가격차가 없으나 소, 돼지 사료는 성축일 경우 강류사료 배합율이 높기 때문에 kg당 10원 가까이 변동되고 있으며 강류사료의 배합율이 낮은 어딘가축은 대차가 없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76. 3. 15 현재의 각 생산업체간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차를 보면 양계용 배합사료는 6원에서 21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축우사료는 5원에서 50원까지 차이가 생기고 양돈사료는 4원에서 87원까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3〉 주요 단미사료 시세

단위 : 원/kg

종 류	서울지방 도매시세			1976. 4. 15 대비(%)	
	75. 4. 15	76. 3. 15	76. 4. 15	75. 4. 15	76. 4. 15
도입 옥수수	96.53	75.22	76	△21.3	1.0
국산 옥수수	90	93.30	93.30	3.7	0
대 두 박	127	116.50	116.50	△8.3	0
임 박	88	97	93	5.7	△4.1
호 마 박	88	96	93	5.7	△3.1
채 종 박	74.50	87	87	16.8	0
옥수수배아박	55	—	50	△9.1	—
옥수수구르벤	120	125	127.50	6.3	2.0
맥 강	44	—	—	—	—
탈 지 강	43	50	61.50	4.3	23.0
소 맥 피	20	45.80	46	130	0.4
어 분 상 품	140	203.50	175	16.7	△14.0
어 분 중 품	120	145	130	8.3	△10.3
골 분	70	98.30	115	64.3	17.0
인 산 칼 슈 제	140	178	—	—	—

<표 4>

배합사료가격(공장도가격) 추세

(단위 : 원/kg)

축종별	배합사료별	1975 평균 가 격	1976 3/15 현재가격	3월 15일 현재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차
				최고가격	최저가격	
양 계 용 사 료	어린 병아리	99.40	98.09	104	95	9
	중 병아리	86.60	86.29	92	80	12
	큰 병아리 전기	76.34	79.38	83	77	6
	큰 병아리 후기	77.21	77.45	81	74.50	6.50
	산란 초반기	86.66	85.51	90	83.50	6.50
	산란 중반기	81.43	80.93	87.50	75	12.50
	산란 후반기	77.16	76.02	85.68	71	14.68
	육계 전기	104.88	104.76	116	97	19
	육계 후기 I	99.03	(I) 102.27	112	91	21
	육계 후기 사료	93.99	(II) 100.39 92.93	111 102	96 90	15 12
축 우 사 료	갓난 송아지	140				
	갓낫 송아지	119.89	109.17	140	90	50
	갓낫 소중 송아지	80	88	98	78	20
	갓낫 소대 송아지	67.44	72.33	79	60	19
	착유 1호	59.80	69.85	73	68	5
	착유 2호	68.07	74.77	80	69	11
	고깃 송중기	64.79	74	79	56.73	10
	고깃 소후기	56.73	64.59	76	53	23
양 돈 사 료	갓난 돼지	182.43	165	188	101	87
	갓낫 어린 돼지	117.57	105.41	135	90	45
	중 돼지 전기	86.10	89.11	102.50	84.50	18
	중 돼지 후기	73.32	80.61	91.50	75	16.50
	씨 돼지	69.40	73.95	85	53.30	31.70
	임신 돼지	62.90	70.66	73	60	13
	임신 유모돈	65.47	75.22	78	74	4
	포유 모돈	75.63	86.17	90	75	15
	종모돈	58.40	—	—	—	—
	농축 사료	양계용	97.86	94.60	104	88
양돈용		95.73	94.80	118	86	32

그러므로 우수한 품질의 배합사료를 구입하려면 신용이 있다고 알려진 우수한 메이커들의 가격을 비교하여 보고, 보다 생산성 있는 사료를 구입하여야 할 것이고 지나치게 저렴한 사료는 다시 한번 그이유를 확인하여 효율 사료를 선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사료원료 확보

1976년도 사료곡물 48만톤 도입 계획중 1차구매 계획에 의거 101,344톤이 3월까지 도

착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고 2차구매계획 16만톤중 14만톤은 기히 구매완료하여 5/11부터 도착될 예정이고 잔여 2만톤은 4월하순에 구매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현재 국제곡물 시세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금년도 도입계획 전량을 추가 구매하도록 농수산부장관의 구매지시가 농협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5월초에는 48만톤 도입계획중 잔량 22만톤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카고 곡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도착가격을 환산해 본다면 C&F톤당 \$ 125~128 수준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범위내에서 원료구매가 실현될 경우 배합사료 가격은 계속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76년도 사료가격 안정기금 적립목표액 20억원의 적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의 옥수수 수급사정을 보면 사료 수요량의 증가와 사료공급제도의 개선으로 옥수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당초 4월말 도착예정인 옥수수 38,322톤이 5/11에나 도착되기 때문에 4월하순부터 5/10경까지 일부 사료공장에서는 배합사료의 생산조절이 불가피한 곳도 있겠으나 양특 보유 옥수수 배정분 2,500%을 대체용으로 공급중에 있으므로 수급상 차질은 없기 때문에 양추가 여러분은 사료를 필요이상 확보하지 마시고 고루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5〉 1976 사료곡물 구매 계획

단위: 톤

구분	구매량	C & F 톤당단가	도착월	비고
1차구매	(10만톤)			
1)	40,132	\$ 122.13	3/22	
2)	41,262	123.31	3/30	
3)	19,950	125	3/22	
소계	101,344			
2차구매	(16만톤)			
1)	38,322	125.77	5/11	
2)	40,000	126.35	5 말	
3)	20,000	128.16	6	
4)	40,000	128.04	7	
5)	20,000	未定	6	
소계	158,322			
3차구매	(22만톤)	未定	6~9월	
계	479,666 (48만톤)			

5. 전 망

이상 서술한바와 같이 배합사료 수요는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강류사료를 비롯한 일부 원료의 수급이 원활치 못한 실정에 있다 하더라도 사료곡물의 국제시세가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이와같이 안정

된 여건하에서 금년도 도입계획 48만톤중 구매량 22만톤의 조기구매를 서두르고 있으므로 배합사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곡류사료의 수급전망은 밝다고 할수있다. 또한 수급상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강류사료는 사료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홍보지침에 따라 사료공급 방법이 소, 돼지사료의 경우 종전의 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 이용에서 농축사료 이용으로 제도가 개선 되었기 때문에 사료의 자급도 제고와 효율적이용을 기한다면 5월부터는 초식 가축의 주사료가 되는 목초의 이용이 가능 하여지고 또한 소맥분 수요등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완화되리라 기대된다.

이밖에 단백질사료 수급은 어획기를 맞이 하였으나 어획 부진으로 예년과 같이 예상대로 회복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밖에 최근 어분의 이용량이 감소하고 인공급제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골분을 비롯한 기타 인공급제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결과는 가축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이지 배합사료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모든 단미사료 원료 가격이 포함 내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합사료가격 변동은 없겠으나 일부 품목들의 가격 변동이나 거래조건 변동 등은 예견된다. 또한 배합사료 원료의 수급 사정을 보더라도 물량상의 커다란 차질은 없으니 양추가 여러분은 앞으로 날씨도 더워져 일시에 많은 사료를 쌓아두면 사료의 변질도 염려가 되니 일시에 많은 배합사료를 매질 확보하는 일이 없이 5월 15일경까지 사용할 물량만을 우선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 하시고 양축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